전남~제주해저터널 건설… 불 지피는 전남도

中 다롄~옌타이 세계 최장 해저터널 추진에 관심

국제심포지엄 준비… 제주는 관광객 유출 우려 반대

전남도가 '전남~제주간 해저터널 국제심포지엄'을 준비하고 있어 해저터널 건설 찬반 논쟁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해저터널은 15조원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건설비용과 실현 가능성, 양 지자체 간 찬·반이 엇갈려 건설 계획이 한동안 수면 아래 잠겨 있었다.

하지만 최근 중국이 랴오둥(遼東)반도의 최대 항만도시인 다롄(大連)과 산둥(山東)반도의 옌타이(煙台)를 잇는 세계 최장 해저터널(123㎞) 건설 연구에 돌입하면서 전남~제주간 해저터널 건설도 다시 관심을 받고 있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내년에 전남~제주 해저터널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할 계획이다. 회의와 학술발표로 치러지는 이 심포지엄은 해저터널의 기술·비용을 분석하고, 국내외 사례를 소개하게 된다.

현재 제주도와 개최지, 개최 방안 등을 협의하고 있다.

전남~제주 해저터널은 목포~해남(66㎞)은 지상, 해남~보길도(28㎞)는 해상, 보길도~추자도~제주도(73㎞)는 해저로 연결하는 고속철도로 총연장 167㎞에 사업 기간은 11년, 사업비는 14조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해저터널 개요

모든 공사가 마무리되면 시속 350㎞의 고속열차가 투입돼 서울~제주까지 2시간26분이 걸리고 2026년 기준으로 매년 1500만명이 이용, 연간 42조원에 이르는 사회적비용 감축과 14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반면, 막대한 사업비와 73㎞에 달하는 해저 구간 건설의 어려움, 환경파괴 등을 우려하는 반대의 목소리도 높다. 또 육지와 직접 연결돼 섬 고유의 특성이 사라져 관광객 유출 등을 우려하는 제주도의 반대도 만만찮다.

전남도는 이 해저터널이 건설되면 지역 관광과 무안공항 활성화 등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지난 1월 현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해저터널 건설을 새 정부의 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공식 요구했었다.

또 재정집행 비율이 0.01%에 불과해 박준영 전남지사의 공약이행 평가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하는데도 해저터널 건설 공약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 해저터널은 국내 대표 관광지인 제주와 전남을 하나로 묶어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중국 관광객이 전남지역으로 분산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관광객 급증은 제주도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중국은 다롄~옌타이 해저터널을 '국민경제사회발전 12차 5개년 계획'에 포함하고, 랴오닝성 교통청이 전문팀을 구성해 본격적인 연구에 돌입해 오는 2015년 초기 연구를 끝마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시, 乙의 목소리 듣는다

행정개선창구 개설 등 혁신운동 전개

광주시가 '을(乙)'을 위한 행정개선 창구를 개설하는 등 대대적인 행정 혁신운동에 나서기로 해 주목을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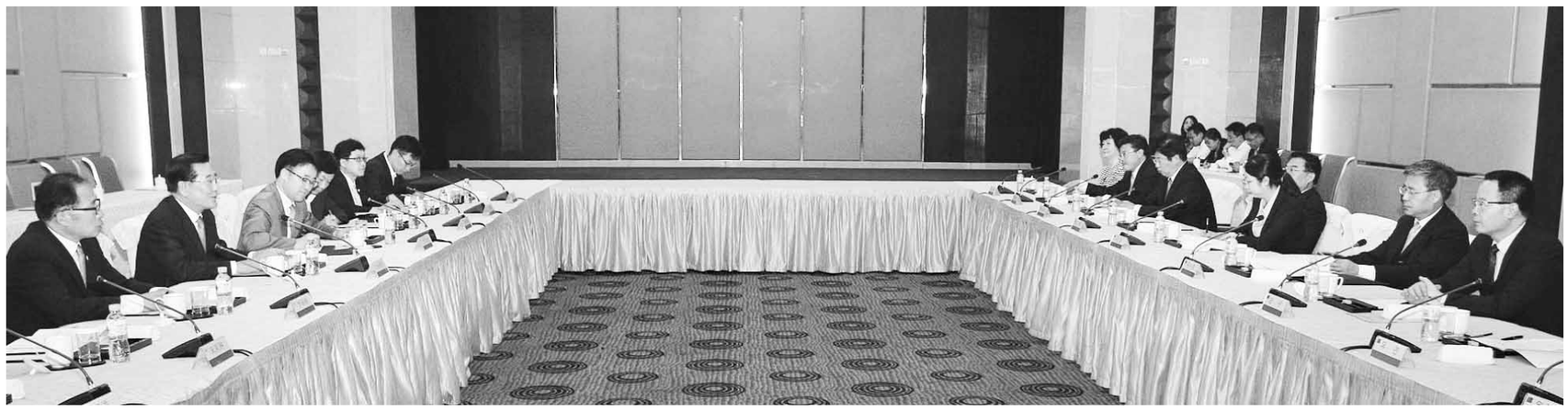
강운태 광주시장은 17일 간부회의에서 "요즘 '갑(甲)-을(乙)' 관계 개선이 사회적 화두인데, 생활현장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분야부터 '을'을 위한 행정을 해야 한다"며 '을'을 위한 행정 개선창구 개설을 지시했다.

강 시장은 "행정을 세밀하게 분석해 보면 시민들 입장에서 억울하고, 불공평하고, 불편하고, 인권을 침해당하는 사례 등이 적지 않다"며 "우선 광주시에서 '을'을 위한 혁신운동을 전개했으면 하고, 시청 각 실·국은 물론 시 산하기관과 가능하면 교육청과 경찰청 등 유관기관도 함께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시청 직소민원실에 '을'을 위한 행정개선 창구를 개설해 접수를 받고, 그 사례를 1차적으로 최근 선임한 인권 옴부즈맨들이 분석·판단해 행정에 권고하면 이를 개선해 나가는 등 체계화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강 시장은 또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간 형성된 '갑-을' 관계에 대해서도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강 시장은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관계에서 지자체는 을도 아닌 병(丙)이나 정(丁)쯤 될 것"이라며 "재정·권력을 둘러싼 중앙정부의 일방적 독주가 위험수위에 다다랐다"고 말했다. 그는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2할(재정)~3할(사무) 지방자치가 지속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박준영 전남지사, 中 방문 교류촉진 논의 투자유치와 교류촉진을 위해 중국을 방문 중인 박준영 도지사가 17일 산동성 산동호텔에서 궈수칭 산동성장 등 중국 관계자와 교류 확대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민선5기 장애인공약 광주·전남 최하위

전국 15개 시·군광역단체장 평가

강운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지사의 장애인공약 중간평가 결과, 관련 공약 수가 적으면서도 제대로 완료되지도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지방선거장애인연대가 17일 발표한 '민선 5기 장애인공약 중간평가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 관련 전체 공약 중 사업이 완료된 비율은 전국 최하위 수준인 광주는 20%, 전남은 0%였다.

단체장 취임이 1년이 되지 않은 경남과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 광역단체장의 장애인 공약을 평가한 이번 조사의 전국 평균 공약 완료 비율은 57%였다. 100개의 공약 중 57개 사업을 완료했다는 뜻이다.

강 시장은 ▲장애인 복지관 기능 보강 ▲남구장애인복지관 건립 ▲광주희망나눔재단 설립 ▲중증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야구타운 건립 ▲장애인스포츠 육성 ▲공공임대주택 건립 확대 ▲사랑의 집 고쳐주기 등 15개의 장애인 공약을 내걸었다.

하지만 이 중 사업을 100% 완료하고, 지역 평가단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내 '매우 우수'로 평가된 공약은 3개뿐이었다.

또 전남도는 ▲장애인 자립 무지개마을 조성 ▲장애아동 재활치료 지원 확대 등 2개의 공약을 내걸었지만 아직 단 한 건의 사업도 완료되지 않았다.

한편 이번 조사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지역 장애인단체연합의 이행률 분석과 지역 평가단의 평가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서 육영수 여사 추모제 열린다

21일 서구문화센터

광주에서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의 추모제가 처음으로 열린다.

(사)육영수 여사 생가 및 탄신 숭모제례 보존회는 오는 21일 오후 2시부터 광주시 서구 금호동 서구문화센터에서 '박정희 대통령·육영수 여사 추모제'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보존회는 그동안 육영수 여사의 고향인 충북 옥천군에서 추모제를 진행해왔다. 광주에서는 처음 열리는 추모제다.

이날 추모제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과 새누리당 김을동 의원, 이한성 의원, 숭모 제례 보존회 회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보존회 측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추모 행사 참석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아직 답신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강운태 광주시장과 광주 지역 국회의원, 기초자치단체 의원들에게도 참여 공문을 발송했으나 대부분 개인적인 이유로 참석이 어렵다는 답변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추모제는 사물놀이 등 식전행사와 추모행사, 추모시 낭독, 육영수 여사의 생전 동영상 상영 등으로 1시간 동안 진행될 계획이다.

보존회의 한 관계자는 "1980년대부터 육영수 여사의 추모제를 지내왔다"며 "6월은 육 여사가 태어나거나(11월) 사망한(8월) 달은 아니지만 보존회 호남지회 발대식을 겸해 광주에서 최초로 추모제를 거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경인기자 kki@

전남 계곡 산소음이온 풍부

오전 5~7시 최다… 웰빙휴양지 제격

전남 계곡에서 분비되는 산소음이온의 양은 오전 5~7시에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원장 이지헌)은 17일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백운산 어치계곡, 지리산 수락계곡〈사진〉, 내장산 남창계곡, 두륜산 대흥사계곡 4곳을 대상으로 산소음이온의 분포 특성을 조사해보니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대상지역의 산소음이온은 공기 1㎖당 평균 7020~1만4060개의 분포를 보였고 최대값은 1만1190~17만8100개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농도를 보인 지리산 수락폭포는 높이가 약 10m로 레너드효과(일명 폭포수효과)에 의해 음이온 발생했다.

대흥사와 남창지점은 10m 이내에서 산소음이온이 소멸된 반면, 좁은 협곡 형태인 어치와 수락지점은 50m까지 그 영향을 미쳤다.

시간대별로는 하루 중 오전 5~7시께가 가장 높게 나타냈고 주변 풍속이 낮고 습도가 높을수록 산소음이온도 높은 값을 보였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빛고을문학관 후보지 매입 협상… 19일 건립추진위회의

부지선정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는 빛고을문학관 건립 후보지에 대한 매입여부를 결정하는 빛고을문학관 건립 추진위원회의 회의가 19일 광주시청에서 열린다.

시는 이날 빛고을 문학관 건립후보지인 동구 수기동 명성예식장(2830㎡)에 대한 공인기관의 감정평가액을 위원들에게 공개하고 해당 부지에 대한 매입절차 개시 여부를 안건으로 제시한다. 명성예식장측은 감정평가액과 별도로 광주시에 매도가 60억원을 제시해놓은 상태다.

위원들이 매입을 의결하면 광주시는 명성측과 매입협상에 들어가고, 위원들이 이를 반대하면 일단 제동이 걸리게 된다.

시는 국비·시비 등 123억원을 들여 2015년까지 빛고을 문학관을 건립하기로 하고, 광주 동구지역에서 부지를 공모해 명성예식장을 건립 후보지로 선정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

사 원 모 집

사계절 푸르른 양잔디, 친환경 나비의 고장 함평다이너스티 CC에서 함께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 모집부문
- 웨이터, 웨이츄레스, 주부사원(신입 및 경력) 0명
- 조리사 0명

■ 자격요건
- 고졸이상 학력 취득자
- 경력자 우대

■ 급 여
- 연봉제 1,900만원이상(퇴직금 별도)
- 경력자 면접 후 결정(이력서 우측상단에 희망연봉 기재)

■ 복리후생
4대보험 가입, 숙식제공, 각종 수당 지급, 경조사지원, 우수사원포상, 단체상해보험가입, 교통비 지급 등

제출서류
- 이력서(사진부착), 자기소개서, 주민등록등본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전형방법
- 우편 및 이메일, 방문 접수
- 접수기간 : 충원시까지(충원시 조기마감)
- 서류접수 후 면접일자 개별통보

접 수 처
- 주 소 :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곡창리 산1-6
- 담 당 : 경영지원팀 오승태 부팀장
- 전 화 : 061)320-7717
- 팩 스 : 061)320-7710
- 이메일 : seungtae01@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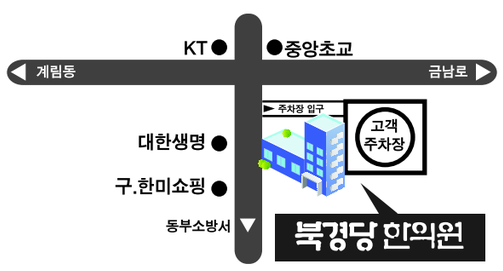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50년 전통 대를잇는 한의원

북경당 한의원

알레르기성 비염
축농증 코피 해결
비만클리닉

한의학 박사 박상준 원장
동신대학교 외래교수 역임



진료문의 062)227-7575
진/료/시/간
평 일 : 오전9시~오전7시
토요일 : 오전9시~오전4시
일요일휴진,공휴일은 오전진료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80130-증-2696호

자연산 참옻을 직접달여 만든 14년 전통

참옻 보양식전문점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착한 가격"

참옻 음식 토종 참옻닭 / 옻 청둥오리/ 옻 삼계탕

한방 음식 한방 백숙 / 한방 청둥오리 / 촌닭백숙 삼계탕

토종참옻닭 (3인분, 식사 술 포함) 40,000원

촌 닭 백 숙 38,000원

옻의 효능 위염, 위궤양 효과 / 과음 및 숙취해소 / 장부실 개선 및 어혈 제거/항암작용, 암세포 성장 억제 / 원기회복 속이 냉하거나 손발이 찬데

함양옻닭 062)515-5757(옻칠옻칠)

광주광역시 북구 유동 9-3 해피뷰병원 뒤(구,삼성병원), 수창초교 후문 건너편